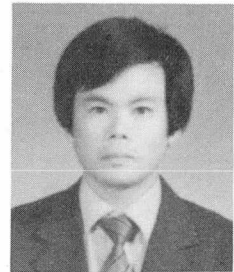


국제경쟁력 육종 경쟁력

향상 방안 제시해야 양돈 양돈



이원형

(한국사이나미드(주)기술부장)

양돈과 인연을 맺어 월간 양돈지에 첫 원고를 기고한 것이 창간 7주년 기념호였던 것 같다. 그러던 것이 벌써 14주년 기념호를 발간한다니 우선 기쁜 생각이 든다. 그동안 양돈에 관한 책자, 정보 등이 미흡해 안타까워 하던 양돈가의 길잡이 역할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아직 한국의 실정으로 보아 돼지의 완전 개방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면 다소 갑갑한 마음이 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다. 지난호에 발표된 돼지 생산비를 한국과 비교하면 수송비, 관세를 포함 하더라도 경쟁하기에 상당히 벅차다는 것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한마디로 싼 값으

로 좋은 육질의 돼지를 빨리, 많이 생산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월간 양돈지가 해야 할 일은 한마디로 위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양돈인과 함께 호흡하는 역할일 것이다. 우선 생산비 절감책으로 사료 및 축산에 필요한 물품, 기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국내외 정보를 끊임없이 소개해야 할 것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모든 두당 출하두수를 22두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모돈회전을 증가 방안, 산자수 향상, 육성률, 분만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기술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델란드에서는 1회의 인공수정으로 10.5두의 산자수를 기록하

고, 영국에서는 모든 두당 연간 25두를 출하한다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도 없다. 문제는 기술 향상이다.

또한 어렵게 생산된 돼지가 좋은 값으로 국내외에 판매될 수 있도록 좋은 육질의 돈육 생산방법도 다루어져야 하며, 항생제, 농약 등 유해물질 잔류가 없도록 올바른 약제 선택 및 활용 방안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월간 양돈은 싼 값으로 좋은 육질의 돼지를 빨리, 많이 생산하기 위한 기술과 정보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수입개방이 아니라 더한 경우가 닥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월간지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